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01(금) ~ 2023.09.07(목)

제공일시 2023 09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01(금) ~ 2023.09.07(목)

제공일시 2023 09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11월 COP28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다시 밀어붙일 듯

- 유럽연합(EU)이 작년에 이어 올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이른바 '글로벌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제안을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임
- 앞서 지난해 COP27 정상회의에서도 EU 등을 주축으로 유사한 협상안이 제시됐지만 당시 200여개국 중 80여개국만 지지하는 데 그쳤음
- EU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앞두고 마련한 협상 입장 초안에서, "기후중립 경제로 전환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며, 화석연료 소비의 정점도 이미 근접했다"고 적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 COP28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연합뉴스, 2023.09.01) 정빛나 기자

2. 기후정상회담, 아프리카 탄소배출권 위해 수억달러 약속

-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기후정상회담을 열고,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탄소배출량을 19배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음
-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은 지난해 이집트 COP27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로부터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탄소크레딧을 구입하기로 약속했음
-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탄소크레딧, 탄소 상쇄 등 시장기반 금융수단을 추진하고 있음
- UAE는 아프리카 기후금융리더로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밝혔고, HSBC자산운용도 2억달러 투자를 발표했다음

(Reuters, 2023.09.06) Duncan Miriri 기자

3. “2030년 전기차 420만대·충전기 123만기 보급”

- 환경부는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함
- 또,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함
-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를 확대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법·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함
-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는 각각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 및 관리를 위한 화재 예방 기능 추가,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음
-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을 다뤘음

(경기일보, 2023.09.06) 김수정 기자

1. 탄소 줄이고 경제 살리고...경기도에 '미니 수소도시'

-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음
-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을, 교통 분야는 수소차와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임
- 경기도는 올해 1개 시군을 선정하며,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임

(서울PN, 2023.09.01) 신동원 기자

2. '재생에너지' 풍부한 해남에 '데이터센터 단지'...전남도 국내 최대규모 추진

- 태양광발전소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데이터센터가 모여있는 '집적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임
- 전남도는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음
- 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용 산업용지 16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을 추진하며, 2037년까지 40MW급 데이터센터 25개가 조성될 계획임
-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해상풍력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음

(경향신문, 2023.09.04) 강현석 기자

3. 정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2천억 규모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추진

- 정부가 구미, 포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 정부는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구미, 포항 등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음
- 또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음

(매일신문, 2023.09.04) 강은경 기자

1. 셸, 새 CEO 취임 후 탄소배출 절감 1억달러 투자 계획 비밀리에 취소

- 유럽 최대 석유 메이저인 셸 PLC가,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투자하기로 공약한 1억 달러 투자를 슬그머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와엘 사완이 새로운 CEO로 취임한지 6개월 만에, 연간 1억 달러를 기업 간 상쇄 프로그램인 탄소배출권에 쓰려던 계획을 비밀리에 포기했음
- 게다가 그는 6월 당초 공언한 대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2030년까지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주주 이익을 늘리겠다는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음
- 셸에 따르면, 당초 목표에 따른 실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탄소 상쇄 목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뉴스퀘스트, 2023.09.03) 김형근 기자
(글로벌비즈, 2023.09.01) 박정환 기자

2. 에니, 이탈리아 최초의 탄소저장 허브

- 이탈리아에서 첫 CCS 프로젝트를 설립하기 위해서 CCS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이탈리아 에니와 가스 그리드운영기업인 스남(Snam)이 힘을 합쳤음
- 이들이 이탈리아 아드리아해에 만들 계획인 허브는 매년 1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며, 이는 이 나라의 탄소집약적인 산업에서 나오는 연간 순배출량의 절반에 해당됨
- 에니는 CCS허브를 통해 이탈리아를 남부 유럽의 탄소저장을 위한 중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음

(Reuters, 2023.09.02) Francesca Landini 기자

3. 아마존, 머스크와 저탄소 운송계약 체결

- 아마존과 머스크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해상운송협약을 발표했음
- 2023-2024 협정에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2만개의 FFE컨테이너 운송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석탄 5000만파운드 연소에 해당하는 4만46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음
-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갖고 있으며, 스코프3 배출량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함
- 이번 협약의 파트너인 머스크는 '에코딜리버리 프로그램(ECO Delivery Program)'을 운영하는데, 늦 객연료로 대체해주고, CO2 저감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함

(ESGToday, 2023.09.06) Mark Segal 기자

1. 전기차 블루오션 열린다...정의선 회장, '인니 전략' 들여다보니 [비즈360]"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 맞춰 인도네시아를 찾아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함
-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현지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 회장의 방문이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임
-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차체 공장,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갖춘 인도네시아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대로, 현대차그룹은 이를 향후 25만대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임

(헤럴드경제, 2023.09.01) 서재근 기자

2. SK에코, GDS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공급한다

- SK에코플랜트가 중국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기업 GDS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공급함
- SK에코플랜트는 GDS가 싱가포르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스템으로 연료전지를 공급·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음
- 이번 협력은 SK에코플랜트와 GDS가 지난해 8월 체결한 '연료전지 연계 데이터센터 사업개발을 위한 협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양사 의지가 반영됐음
-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SOFC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SK에코플랜트는 GDS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공급을 비롯한 연료전지 전체 패키지 EPC(설계·조달·시공) 업무를 맡음

(파이낸셜뉴스, 2023.09.04) 최윤준 기자

3. 포스코인터, 미국서 6억 톤 바다 탄소저장소 확보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텍사스주가 주관한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사업 국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음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스페인 렘솔, 미국 카본버트, 일본 미쓰이 미국법인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으며, 지분은 10%를 차지함
- 사업대상 지역은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 해상 578km²로, 서울시 면적과 유사한 수준임
- 컨소시엄은 저장소 평가를 진행한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달 중 미국에 새 회사를 설립하고, 추가 CCS사업도 추진할 방침임

(한국일보, 2023.09.06) 이윤주 기자

(탈사이트, 2023.09.06) 김수정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9.01(금) ~ 2023.09.07(목)

제공일시 2023 09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유럽 패스트패션업체, EU의 폐기물 산업 단속에 대비 중

- EU가 폐기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헌 옷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자선단체 모다 레(Moda Re)와 같은 단체가 주목 받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모다 레가 헌 옷을 재활용하는 최초의 업체는 아니지만, 유럽의 패스트패션 업체들이 다가오는 EU의 폐기물 산업 단속에 시급히 대응하게 되면서 참고할 사례를 찾고 있기 때문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매년 유럽의 의류 폐기물 520만 톤 중 4분의 1 미만이 재활용되고 수백만 톤이 매립지에 묻힌다고 지난 7월 밝혔다. 2021년 EU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 증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2010년경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수집량이 증가해왔음
- EU는 의류의 재활용된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 제품이 내구성,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섬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EU가 목표로 하는 섬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모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60억~70억 유로(약 8조5191억~1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음
- 스페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모기업인 인디텍스(Inditex)는 모다 레에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인디텍스는 모다 레에 3년에 걸쳐 350만 유로(약 5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다 레는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빌바오, 발렌시아에도 시설을 확장할 예정임. 현재 모다 레는 현재 100개가 조금 넘는 중고 상점을 향후 3년 동안 300개로 확대하여 재판매 수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모다 레가 받는 의류의 약 40%는 재활용을 위해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데, 그중 5분의 1만 재활용 섬유가 됨. 모다 레는 이 비율은 향후 3~4년 동안 70%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음
- 또 모다 레에 기증된 옷의 거의 절반이 카메룬, 가나,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재판매용으로 배송되고 있음. 모다 레는 아프리카로 보내는 옷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모다 레는 EU의 폐기물 산업 단속에 대비해서 1년에 처리하는 양을 4만 미터 톤,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계획임. 모다 레의 이사 알베르트 알베리히(Albert Alberich)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는 패션 회사들을 위해 헌 옷들을 유럽의 원료로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음
- 또한, 스페인에서는 H&M, 망고, 인디텍스 등 경쟁사들이 2025년 1월부터 EU회원국들이 섬유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도록 하는 EU법에 대응하여 의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영리 협회를 만들었음
- 스페인처럼 섬유 폐기물 협회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설립되어 있음. 프랑스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리패션(Refashion)이라는 조직 아래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스페인 인디텍스뿐만 아니라 독일의 푸마(Puma)는 독일의 의류 수집 및 분류 회사 I:CO, 스위스의 텍사(Texa) 및 이탈리아의 베스티솔리데일(Vestisolidale)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인팩트는, 2023.09.05) 홍명표 기자